학교폭력 초등생 증가 중·고생 감소

교육청, 실태조사 결과 발표 14만2000여명 중 1329명 학교폭력 피해 당한적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2017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되었고 전북도는 조사대상 학생 17만명 중 83%인 14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주요 분석 결과로는 참여 학생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329명(0.9%)으로 전년 동차 조사와 유사하였다.

학교급별 피해응답학생은 초등학생 860명, 중학생 268명, 고등학생 201명이며 전년 동차 대비 초등학생은 증가, 중·고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전년 동차 대비 학생들이 중복 응답한 유형별 피해응답 건수는 2,943건에서 3,079건으로 소폭 증가했고 피해유형별로 언어폭력(32.9%), 집단따돌림(16.3%) 순으로 전년 동차 조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피해 시간대는 쉬는 시간(34.3%)과 점심시간(19.0%)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교이후(12.0%), 정규수업시간(7.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장소로는 교내에서는 교실 안(31.8%), 복도(15.3%), 학교내 다른 장소(10.2%)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외에서는 사이버 공간(5.2%), 놀이터(4.6%)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안 70.4%, 학교 밖 23.2%로 학교 안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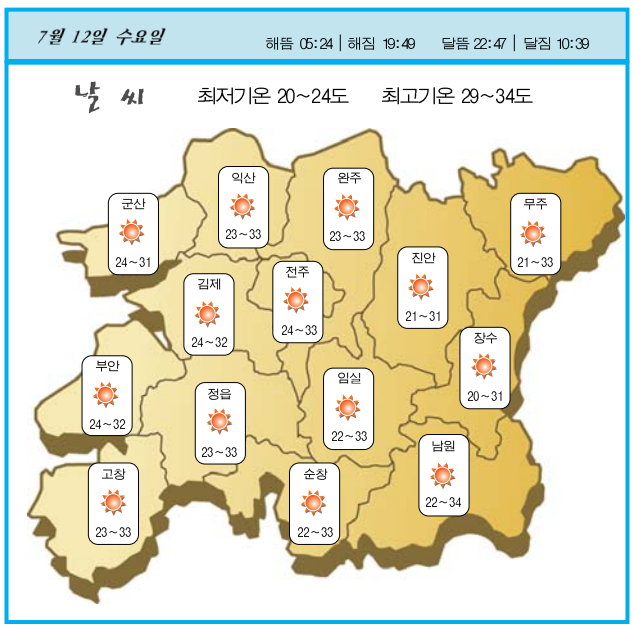
정비 마친 백제 왕궁의 곡수로

11일 익산 왕궁리유적(사적 제408호)이 일반에 공개됐다. 사진은 왕궁리유적 내에 정비를 마친 곡수로의 모습.

가해 이유로는 나를 괴롭혀서(27.5%), 장난으로(21.7%), 맘에 안 들어서(13.5%), 이유 없이(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나를 괴롭혀서 가해를 한다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30.2%) 중학교에서는 장난으로(22.2%), 맘에 안들어서(20.8%)의 순으로 나타났고 고교에서는 장난으로(34.6%), 나를 괴롭혀서(20.5%) 등의 이유로 가해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정해은 기자



학생선수 최저 학력제 운영

최저학력 기준 설정 미도달 학생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저 학력제가 운영된다.

10일 전북도교육청은 초등4학년 이상~고3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미도달 학생선수에 대해선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최저 학력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최저학력 기준은 해당과목의 학력 평균을 초등학생은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에 도달해야 한다.

적용과목은 초중학생은 5과목(국,영,수,사,과), 고등학생은 3개 과목(국,영,수)이다. 적용시험은 이론시험과 수행평가가 포함된 매 학기말 고사다.

이에 따라 최저 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중학생(5개 교과)은 교과별로 12시간씩, 고등학생(3개 교과)은 20시간씩 운영하며 총 6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정해은기자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오늘 도내 99교서 실시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늘 전국에서 희망 고교,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에 치러진다.

도내에서는 99교에서 3학년 학생 1만9천8백18명(한국사 기준)이 응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게 된다.

평가 영역은 수능시험과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 영역이며 2017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적용해 수학은 가/나형으로 분리해 실시하고 한국사는 필수 응시하도록 했다.

시험 시간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4시32분까지다.

1교시 국어(45문항) 80분, 2교시 수학(가·나형 각 30문항) 100분, 3교시 영어(45문항) 100분, 4교시 한국사(20문항) 30분·탐구(사회·과학 과목당 20문항 최대 2과목 선택) 30분이다.

평가결과는 28일~8월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에서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산출한 학교별 성적일람표 및 개인별 성적표 자료를 제공한다.

단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에게는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 성적 통계, 도수분포표, 성적표 해설 자료는 공문으로 각 학교에 송부될 예정이다.

/정해은기자

전북대, 스마트 강의실 9개 대거 개소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1학과 1스마트 강의실 구축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9개 스마트 강의실이 대거 문을 열었다.

전북대는 이날 오후 2시 인문대에 3곳을 비롯해 사회대와 큰사람교육개발원, 공대, 농생대, 예술대 등에 모두 9개의 스마트 강의실을 구축하고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전북대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 전체에 스마트 강의실 100실 도입을 목표로 하고 그간 동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금 모금 캠페인을 벌여 예산을 조성했고 의자나 테이블 하나까지 기부를 받아 강의실이나 물품 등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겨 많은 이들이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번에 구축된 스마트 강의실도 기존처럼 교수-학생 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자동추적 녹화 시스템, 태블릿 PC 이용 환경 등이 잘 조성돼 있다.

특히 공대와 농생대는 강의를 촬영할 수 있고 사회대와 인문대는 소통, 그리고 예술대는 실습형 강의실로 조성하는 등 각 학과별 특성을 스마트강의실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전북대는 현재 74실의 스마트 강의실 구축을 완료했고, 내년까지 100실 도입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남호 총장은 "오늘 문을 연 스마트강의실은 모두 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학과 특성을 살려 자유롭게 소통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이 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키는 일만 잘해내는 모범생을 넘어 스스로 일을 찾아 동료들과 협력하며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험생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의료용 고분자·조직공학 전략 심포지엄 개최

제12회 의료용 고분자·조직공학 전략 국제심포지엄(대회장 전북대 고분자·나노공학과 강길선 교수)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KIST에서 개최된다.

이 국제 컨퍼런스는 매 2년마다 개최되는 고든형태의 컨퍼런스로 199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12번째로 열리는 것. 미래의학의 요체인 줄기세포와 재생의학, DDS, 조직공학, 생체재료, 3D 프린팅, 유전자치료, 바이오이미징 등의 모체격인 학회다.

올해는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초청돼 관련 분야에 대한 현재의 연구 방향과 미래 비전을 가늠하는 자리로 꾸려진다.

학문의 모체가 되는 연자로 알란 호프만 교수, 카즈노리 카타오카 교수, 제임스 유 교수, 존스 힐본 교수 등이 초청됐고 전·현직 및 차기 세계조직공학재생의학회 각 지부회장 및 TERMIS Global 회장이 대거 참석해 강의를 진행한다. TERMIS-AP 회장이었던 이해방 박사, 야스히코 타바타 교수, TERMIS-AM 차기회장인 존 피셔 교수, TERMIS Global 회장이었던 존스 힐본 교수, 현회장인 루이 레이스 교수, 또한 차기 회장인 전북대 강길선 교수도 강의를 한다.

또한 유수한 저널의 편집장들이 강의를 하는 보기 드문 초호화 초청연자로 구성되었다.

이번에는 특히 알란 호프만수, 레이오텐브라이트 교수의 공적을 기념하는 특별한 컨퍼런스를 대회장인 강길선 교수, 명예공동대회장 이해방·김영하 교수가로 진행한다.

초호화 연자가 대거 초청되는 만큼 5백여명의 인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학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BPS 2017 학회 홈페이지(www.FBPS2017.org)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정해은기자